

광주·전남 개미들 하락장서 울다

거래대금 상위 10종목 중 6종목 연초보다 떨어져...삼성전자 24.3% 매입 단가 낮추기 '물타기'에 손실 증가...금리 인상 속 자금압박 커져

올해 하락장 속에서 광주·전남 주식 투자자들의 거래대금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6개 종목 주가는 연초보다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입한 주식 가격이 하락할 때 주식을 추가로 매입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물타기' 방식을 택하면서 손실이 불어나는 가운데 금리 인상 속 자금 압박이 커지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광주·전남 주식거래 동향' 자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지역 투자자 거래대금 1순위는 삼성전자로 나타났다.

올해 1~11월 광주·전남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거래액은 1조6851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 주가는 연초 7만8600원으로 시작했지만 등락을 거듭하다 이달 16일 종가는 5만9500원으로, 24.3%(-1만9100원) 하락했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광주·전남 투자자 월별 거래대금 상위 10위권에 든 코스피 종목들을 살펴보니 삼성전자에 이어 연초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과 일동제약, SK하이닉스, 카카오, 포스코케미칼, HMM, 현대로템, 한화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종목 주가를 연초와 비교해보니 10개 가운데 6개 종목이 하락했다.

지난 1월27일 상장한 2차전지 대장주 LG에너지솔루션은 이달 들어서만 주가가 17% 넘게 빠졌다. 테슬라 발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등의 영향을 받아 연초보다는 3.9%(50만5000원→48만5500원) 떨어졌다.

반도체 업황 악화를 겪고 있는 SK하이닉스도 주가가 연초보다 39.0%(12만8500원→7만8400원) 급락했다. 이외 지역민들이 우선 투자한 종목인 카카오(-52.5%)와 HMM(-20.1%), 두산에너빌리티(-22.7%) 등도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 상위 10위 종목들 주가는 연초보다 평균 7.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위권에서 주가가 오른 종목은 일동제약(20.0%↑)과 포스코케미칼(31.4%), 현대로템(29.2%), 한화솔루션(39.5%) 등 4개이다.

한편 전국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주식시장에서 26조원을 순매수한 가운데,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은 전부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초부터 이달 16일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카카오뱅크, 에코프로비엠, LG전자, 삼성전기)은 전부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다.

개인투자자들이 15조7635억원 어치를 순매수한 삼성전자는 16일 종가가 5만9500원으로, 올해 평균 매수가(매수대금을 매수량으로 나눈 값)인 6만4605원보다 7.9% 낮았다.

순매수 2·3위 종목인 네이버(-23.6%)와 카카오(-27.9%)를 비롯해 SK하이닉스(-24%), 에코프로비엠(-43%) 등이 -20%를 밑도는 수익률을 보였다.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수익률 평균은 -19.23%였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각각 순매수한 상위 10개에서는 절반인 5개씩이 수익률 '플러스'를 기록해 개인 투자자와 크게 대조됐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수익률 평균은 1.42%, 기관 투자자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1.26%였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SDI(9.9%), LG화학(7.8%), KT&G(14.1%), 한화솔루션(13.4%), 클래식스(3.9%) 등이 수익권이 었다.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4.6%), 셀트리온(2.6%), 한화솔루션(13.3%), 씨에스원(20.1%), 삼성바이오로직스(1.1%) 등이 플러스 수익률을 냈다.

전문가들은 개인들이 하락장에서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에 대해 '물타기' (매입한 주식이 하락할 때 주식을 추가로 매입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것) 방식으로 매입을 지속하면서 평가 손실이 커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연합뉴스



먼로가 사랑한 샴페인 맛보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지하 1층 와인 매장에서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와인 앤 샴페인 페스티벌'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세기의 배우 마릴린 먼로가 즐긴 샴페인 '파이퍼하이치 코리아 에디션'을 단독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가운데) 신입행원 등 30여 명은 광주시 북구 흥흥동 한 가정을 찾아 연탄을 배달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 통해 겨울철 난방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 500만원을 기부했다. <광주은행 제공>

내년 차보험료 2%대 내리고 실손보험 9% 오른다

2월 가입자부터 롯데손보 최대 2.9%...실손 인상률 1월부터 적용

최근 경기 침체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내년 자동차 보험료는 최대 2%대 인하되는 반면 실손보험은 최대 9%대까지 오를 전망이다.

18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과 생·손보험회는 내주 자동차 보험료와 실손보험료 조정 결과를 단계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자율적으로 동참해 논의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으며 내주 중후반쯤 자동차 보험료와 실손보험료 조정 폭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손해보험사들은 당초 1% 인하를 고려했으나 국민의 힘 등 정치권이 강력한 불만을 피력하자 삼성화재 등 대형사들도 동참해 최대 2%대까지 인하할 예정이다.

중형 손해보험사인 롯데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는 자동차 보험료를 각각 최대 2.9%와 최대 2.5%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료 인하가 발표되면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가입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 대형 손해보험사들도 자동차 보험료를 기존 방안보다 더 내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를 평균 2% 내외 인하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동차 보험료는 손해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2000만명이 가입했을 정도로 국민의 일상과 관련돼있다. 더구나 물가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업계와 협의를 통해 상생 방안을 논의해왔다.

앞서 삼성화재 등 일부 손해보험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차량 운행량과 사고의 감소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된 효과를 반영해 지난 4~5월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1.2~1.3% 내린 바 있다.

올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0%대로 추가 인하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다.

매년 2조원대 적자로 10%대 보험료 인상을 추진해오던 실손보험은 서민 생활의 부담과 물가 상승 우려를 반영해 내년 인상률을 한 자릿수인 최대 9%대 수준으로 묶기로 했다.

이 인상률은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20년 2조5000억원, 지난해 2조8000억원을 기록했고 올해도 2조원대 적자가 예상된다.

실손보험은 보험을 든 고객이 병원 치료 시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으로, 가입자만 지난 3월 기준 3977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과잉 진료 급증으로 1~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지난해 132.5%에 이어 올해는 120%대 중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낸다는 의미다.

실손보험료는 2017년 20.9% 인상된 뒤 2018년과 2019년엔 동결됐고 2020년에는 6~7%, 지난해에는 10~12% 올랐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역대급 수익을 내는 보험사들이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외면한다는 비난이 적지 않고 실손보험 또한 이런 상품을 설계한 보험사들의 잘못도 적지 않다는 비판도 있어 이런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내년 원달러 환율 1100원대로 하락"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전망

'킹달러'로 불렸던 달러화 초강세가 최근 주춤한 가운데, 내년 달러 가치가 추가로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8일 블룸버그 산하 경제연구소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에 따르면 스티븐 추 수석 전략가 등은 내년 아시아권 통화 전망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화·유로화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지수(DXY)는 1월 중순 94.629에서 9월 말 114.778까지 급등해 2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최근에는 104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

보고서는 내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진정으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 금리 인하까지 고려할 경우, 달러 지수가 100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달러 지수가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100선 아래로 내려갈 경우, 기술적으로 98과 95

가 다음 지지선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는 연준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4.25~4.50%로 0.5%포인트 올릴 당시 제롬 파월 의장이 "물가상승률이 2% 목표치를 향해 계속해서 내려간다고 확신할 때까지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결이 다르다.

하지만 블룸버그·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의 이런 패배적(통화긴축 선회) 입장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성장이 둔화하면 결국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베팅하는 의견이 여전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경기침체나 지정학적 위기 고조 등이 부각될 경우 일시적으로 달러 강세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도, 세계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질 경우 달러 지수가 지속해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도표(점도표)에 따르면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가 5.00~5.25%(중간값 5.1%)인 만큼 내년 상반기 0.75%포인트 정도 추가로 올라갈 여지가 있는데, 금리가 고점에 이르른 이후 완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사회공헌활동 표창·감사패 수상

금호타이어가 사회공헌활동으로 표창과 감사패를 잇달아 받았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15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주최한 '2022년 후원 감사의 날' 행사에서 불우이웃 후원자 및 공익자 부문에서 서울특별시 표창을 수상했다.

금호타이어는 2016년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업해 '희망의 공부방' 조성 사업, 산타원 정대활동, 코로나19 세이프박스(Safe-Box) 지원, 어린이 기후환경교육(그린캠페이너)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금호타이어는 당일 한국임업진흥원 주관으로 '산림 ESG 성과공유회'에서 감사패도 수여했다.

2015년부터 서울특별시와 함께 식생 복구사업의 일환인 '금호타이어 탄소상쇄 숲' 조성을 기점으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등록, 산림조성을 통해 자발적 온실 가스 감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진구 경영지원팀장은 "금호타이어는 '자원'에 대한 의미를 돌아보고 금호타이어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지속가능한 미래에 투자하고 있다"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미래세대가 살

아가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비롯해 청소년 학교폭력예방교육, 교통사고 중증피해 유자녀 멘토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기부사업과 후원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교육기부 활성화의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 주최의 '2020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도 수상한 바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 로또복권 (제1046회)						2등 보너스숫자	
당첨번호						28	
7	16	25	29	35	36		
등위						당첨금액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011,415,719	12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70,575,991	57
3	5개 숫자일치					1,359,524	2,959
4	4개 숫자일치					50,000	139,560
5	3개 숫자일치					5,000	2,260,269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